

한국어 문화 항목 편성 연구

이효인*

|| 차례 ||

1. 머리말
2. 학습자들의 문화 선호도 조사
3. 한국어 문화 항목 설정
4. 문화 항목 유형에 따른 교육 편성 방안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효과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해 문화교육 항목을 편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목표 언어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제대로 목표 언어를 습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많은 경우의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한국문화는 언어의 기능적 면과는 분리되고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내용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습자들이 요구하는 한국 문화 수업의 유형과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항목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문화 항목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고 그 유형에 따라 고려해야할 사항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문화 교육, 문화 항목, 문화 선호도, 한국 문화 유형, 교재 편성

* 대불대학교 국제한국어교육학과 조교수.

1. 머리말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문화를 교류하는 일종의 수단임과 동시에 언어 그 자체가 사회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담은 문화이다. 그러므로 어떤 언어를 습득하여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그 언어의 문법이나 어휘, 발음만을 익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학습자가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행동문화, 가치문화, 일상문화 등을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이러한 문화적 내용을 인식하고 이해했을 때 한국어 교육의 효과도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은 언어의 기능적 측면의 교육과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언어교육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고 하여도 그때의 문화 내용이란 언어적인 요소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어 교육을 통해 얻은 목표 언어의 문법 지식이나 어휘 능력 같은 언어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생기는 오류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목표 언어의 문화를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는 경우 학습자는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인 여러 상황에서 문화적 충격을 겪게 되고 오해나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은 언어 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능인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등의 기능적인 교육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과 그 사회의 문화에 대한 교육에 그 목표가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는 효과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초·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 문화 교육 항목을 추출하고 문화 교육 항목 편성의 실례를 보이는 데 목적이 있다.

2. 학습자들의 문화 선호도 조사

학습자의 수준에 맞지 않는 문화 항목이나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문화 항목은 그 자체가 훌륭한 문화일지라도 배우고자 하는 흥미를 저하시켜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지 못하고 나아가 한국어 학습의 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요구와 의사소통능력과 관계된 문화 항목의 선호도를 파악하는 일은 한국어 문화 항목 선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한국 문화 항목에 대한 학습자의 선호도를 알아보고, 학습자가 초급과 중급의 과정에서 한국어 교재를 통해 배운 문화 항목들 중 의사소통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효과적이었던 항목들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중급의 과정을 지나 고급의 과정에 접어든, 대학에서 한국어 학을 전공한 중국 유학생 1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학습자들의 초·중급 시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첫째는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 방법은 어떤 것이며, 그 중에서 한국어 교재는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영향력이 있는지 조사하였으며, 둘째로 한국 문화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수업 유형을 조사함으로써 문화 수업이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았다. 셋째, 초·중급의 시기에 학습했던 문화 중에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 항목을 조사해 보았다. 설문 대상자들은 한국에 유학 오기 전부터 중국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학습했으며 그 기간은 3년(28%)~3년 6개월(36%) 사이가 가장 많았다.

먼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방법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영화/TV(31%)’를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다음으로는 ‘한국인과의 직접적인 관계(34%)’, ‘문화체험활동 참가(17%)’의 순으로 들었다.(표 1. 참조)

표 1. 한국 문화 이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방법	백분율(%)
영화/TV	31%
한국인과의 직접적인 관계	24%
문화체험활동 참가	17%
교사의 교수 활동	10%
한국어 교재	10%
한국 문화에 관한 책	8%
합계	100%

‘한국어 교재(10%)’, ‘교사의 교수활동(10%)’, ‘한국문화에 관한 책(8%)’을 통해 문화를 이해했다고 답한 비율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 이해에 한국어 교재가 도움이 되었는지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61%)는 응답은 학습자가 한국 문화 이해에 있어서 교재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 참조)

표 2. 한국 문화 이해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기여도

기여도	백분율(100%)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21%
잘 모르겠다	8%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61%
매우 도움이 되었다	8%
합계	100%

그러나 위의 도움이 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응답자(31%)가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어 교재의 문화 설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보통(66%)이거나 설명이 부족하다(21%)의 평가가 높은 점은 한국어 교재 편성을 위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표 3. 참조)

표 3. 한국어 교재의 문화 교육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보통이다	충분하다	합계
백분율	6%	15%	66%	13%	100%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 이해를 위해 한국어 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재 혹은 수업 유형에 있어서 만족과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두 번째, 한국 문화 학습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수업 유형을 조사하였다. 학습자들은 문화 학습이 교과서 중심(23%)이며 한국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의 기회가 부족(53%)하므로(표 4. 참조) 실질적이며 과제 중심적인(36.5%), 문화를 언어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는 수업(35.5%)을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5. 참조)

표 4. 문화 학습에서 부족한 측면

부족한 점	백분율
교실 내 문화학습 부족	7%
한국인과의 접촉, 대화 부족	53%
현장학습 부족	17%
너무 교과서 중심적(실질적인 것 부족)	23%
합 계	100%

표 5. 문화의 이해를 돕는 한국어 수업 유형

수업 유형	백분율(%)
문화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수업	6%
언어 수업시간에 참고적으로 교육하는 수업	21%
언어 수업자료로 문화내용을 활용하는 수업	35.5%
여러 가지 과제 활동을 통해 이해를 돕는 수업	36.5%
기타	1%
합 계	100%

세 번째로 학습자가 초·중급에 학습했던 문화 항목 중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 구체적인 요목들을 열거하고 선택하게 하였으며, 그를 통해 문화 유형별, 시대별, 주제별 문화 항목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¹⁾

표 6. 선호도 조사에 따른 시대별 문화 항목 비율

시대	백분율(%)
전통문화	8%
현대문화	58%
전승문화	19%
시대구분 없음	15%
합계	100%

표 7. 선호도 조사에 따른 주제별 문화 항목 비율

주제	백분율(%)
의식주	20%
한국어의 특징	13%
교통/경제/지리	13%
놀이/여가/행사/세시풍속	12%
기타	10%
행동양식/예절	6%
제도/관습/의식/의례	5%
문화	5%
문학/예술	4%
한글	3%
국가상징	2%
교육	2%
종교/철학/윤리/민간신앙	2%

1) 국립국어원(2005:276-279)에서는 한국어 교재의 문화 항목을 “Brooks(1975)의 분류”, “시대에 따른 분류”, “주제에 따른 분류”라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본고에서는 국립국어원(2005)의 분류를 적용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물	2%
역사	1%
가족	1%
합계	100%

제별 문화 항목에 대한 선호 조사 결과 중에서 각각의 세부적인 요목에 대해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었던 비율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으며, 이는 유형, 시대별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하였다.

표 8. 문화 항목에 대한 학습자 선호도 비율

주제	문화요목	비율
의식주 (20%)	한복	2%
	한국의 음식	4%
	한국의 상차림	1%
	술문화	2%
	식사에절	3%
	전통 가옥	1%
	온돌	1%
	좌식 생활	1%
	현대 한국인의 집 문화	1%
	하숙/기숙사	2%
	한국 대학생의 생활	1%
행동양식/예절 (6%)	사양/거절하는 방법	1%
	한턱내기	1%
	한국인의 인사법 (식사했어요? 같이 밥 한번 먹어요.)	4%
교통/경제/지리 (12%)	대중교통 이용/예약	2%
	고속도로와 휴게소	1%
	쇼핑문화	2%
	한국의 유명한 관광명소	3%
	인기드라마촬영지	1%
	한국의 주요 도시	3%

가족(1%)	가족제도	1%
제도/관습 (5%)	국가기념일/공휴일	3%
	과거와 현대의 결혼문화	1%
	징병제도	0%
	건강보험제도	1%
한국어의 특징 (13%)	속담/관용표현	3%
	존댓말/반말	4%
	표준어와 비표준어(사투리, 은어)	2%
	외래어	2%
	한국에서 '우리'의 의미	2%
	인터넷 용어	1%
문학/예술 (4%)	문학 작품	1%
	공연/영화	3%
놀이/여가/행사 /세시풍속 (12%)	전통적인 절기와 명절	2%
	민속놀이/사물놀이	2%
	돌/환갑 문화	1%
	씨름/태권도	2%
	한국의 축제 문화	2%
	노래방/PC방/찜질방 문화	2%
	한국인이 선호하는 취미활동	1%
종교/철학 (2%)	한국의 종교	1%
	미신(숫자4의 의미, 귀신)	1%
인물 (2%)	한국의 역사적 인물	2%
교육 (2%)	한국의 입시제도	1%
	책거리	1%
	가정교육	0%
국가상징 (2%)	태극기/애국가/무궁화	2%
문화 (5%)	문화적 차이	2%
	대중문화(가요, 드라마)	3%
역사 (1%)	한국의 역사/역사 문화 탐방	1%
한글 (3%)	한글	3%

기타 (10%)	한국의 날씨/사계절	3%
	띠, 나이 묻기	1%
	지역 이기주의	0%
	성급함	0%
	성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	1%
	경로사상	0%
	한국 직장인의 근무시간/휴일	1%
	면접 방법	1%
	생활에 필요한 주요 전화번호	1%
	아르바이트의 종류와 정보	2%

3. 한국어 문화 항목 설정

학습자 선호도 분석을 바탕으로 문화 항목을 설정하는 과정은 실생활에서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과 과제의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직접적인 의사소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문화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를 중심으로 실제 생활과 연계한 학습자의 경험에 무엇보다 강한 비중을 두는 것이다.²⁾

학습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통해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시대 구분 없음’문화의 비율 차이이다. 문화 항목을 시대별로 구분했을 때 시대 구분 없는 문화 항목이란 다른 언어와는 구별되는 한국어만의 특징(색채)³⁾, 국가 간

2) 상황-문맥 중심 교수요목의 구성에 가깝다. 이 유형의 교수요목은 일상적인 상황들이 그 목록이 되며 주어진 사회적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학습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교수요목이 작성된다. 이러한 목록 선정은 학습자들의 필요나 흥미에 부합하는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는 점과 문법적인 요소의 학습보다는 언어의 사용에 그 초점이 있으므로 의사소통 욕구를 내적으로 동기화하는데 적합하며, 실제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3) 한국어의 특징으로는 말의 중요성, 말조심, 국어순화, 존댓말, 여러 가지 관용 표현, 표준어와 비표준어, 방언, 은어, 몸짓언어, 외래어, 의성어, 의태어, 감탄어, 한국어만의

의 문화적 차이, 한국인의 공통적인 성향, 고유의 환경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항목들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보편타당한 문화가 아니라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문화권과 차별되는 문화적 특성과 차이이다.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화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기존의 학자들의 주장에서도 알 수 있다. 박영순(1989:45)은 문화적 기초 어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에서 그 문화만의 기본적인고 상징적이며 독특한 어휘를 대표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정숙(1997:321)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고 고유한 각 문화만의 특질적인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인식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언어교육, 즉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과라 하겠다. 이는 학습자의 주제별 선호도 조사에서도 나타나는데, 한국어 교재를 주제별로 분석했을 때 보다 ‘한국어의 특징(13%)’, ‘문화(5%)’의 학습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결과가 그것이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화 이외에도 현대 변화된 문화를 추가하여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대표적인 한국 문화 특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⁴⁾

특질(색채), ‘우리’의 의미 등이 이에 속하며, 한국의 사계절, 기후, 날씨, 숫자 100의 의미 등의 기타 항목도 시대 구분 없음으로 구분될 수 있다.

- 4) 박영순(2003)은 11가지의 한국 문화의 특질을 제시하며 한국인의 고유한 정체성에 대해 ‘유교적, 집단적, 연고적, 감성적, 역동적, 진취적’이라고 평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관념적인 문화와 그것이 투영되어 나타나는 모든 행동문화를 뜻하는 동시에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 필수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최준식(1997)은 한국의 문화를 집단주의, 권위주의와 배타성, 신명과 예술성의 세 분류로 나누었다. 한국의 집단주의는 유교와 결합된 가족중심의 집단주의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별하는 ‘우리’ 의식이 매우 강하다고 하였다. 권위주의와 배타성에 대해서는 서열을 따지는 한국어의 존칭, 호칭 등을 들어 설명하였고, 한국의 무교로부터 영향을 받은 신명과 예술성은 놀이문화, 축제문화, 대중문화로 나

(1) 가족문화

유교적인 사고방식인 ‘효’와 ‘경로’사상이 주를 이루며 사생활보다는 가족과 가문 중심의 문화이다. 가족주의를 강조하는 한국의 문화는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지 않는 단점도 있으나,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공동체 생활에 적용될 때는 화합과 어울림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는 한국만의 독특하고 값진 문화이다. 어른을 공경하는 존댓말 사용, 명절이나 절기를 챙겨 가족이 화합하는 명절문화, 친족 간의 호칭을 사회 생활에 확대 적용하는 사례 등이 가족문화에 속한다.

(2) 집단문화

개인보다는 집단을 더 중시하여 집단 속에 소속되는 것을 좋아하는 현상으로 다양한 모임문화, 공동체 의식과 친근한 유대감을 표현하려는 ‘우리’라는 칭호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의식은 내집단이 아닌 외집단에 대한 배타성도 함께 지녀서 연고를 중요시한다거나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민족주의로 잘못 나타나기도 한다.

(3) 공유문화

가족문화와 집단문화를 통해 형성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은 가족과 집단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보다는 비타산적인 인간관계 형성을 중요시 하는 것이다. 공유하는 부분이 클수록 상대방을 이해하고 더욱 돈독한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한국인의 성향은 “밥 먹었어요?”, “어디 가세요?”라는 인사법을 통해 표현된다. 또한 함께 먹고 나눠 먹는 음식문화를 통해서도 한국인의 공

타난다고 했다.

유문화를 엿볼 수 있다.

(4) 서열문화

유교사상에서 비롯된 수직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순으로 혹은 직급 순으로 서열을 정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인이 처음 만났을 때 인사말로 나이를 먼저 묻는 이유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나이에 따라 알맞은 높임말을 사용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직장에서 직급에 따라 행동 범위에 한계가 있는 것도 모두 서열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상하 서열관계와 그에 맞는 예절, 높임법 등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임과 동시에 한국 문화이해와 한국어 학습을 위해 필수적인 항목이다.

(5) 역동적인 흥(興)문화

여럿이 함께 즐거기를 좋아하는 한국인의 정서가 역동적인 흥문화를 통해서 나타난다. 에너지 넘치는 응원문화, 신명나는 사물놀이, 다양한 대중문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지 않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문화(노래방, PC방, 찜질방) 등이 이에 속한다.

(6) 변화하는 문화

① 정보문화 : 한국인의 급하고 빠른 성향과 새로운 것에 대한 역동적인 수용성과 개방성을 보여주는 문화이다. 배달문화, IT산업의 발달, 경제의 발달, 교통문화가 이에 해당하는 현상이다.

② 직업문화 : 변화하는 한국인의 정서에 따라 선호하는 직업이 달라지는 점, 직업을 얻기 위한 자격증취득문화, 새로운 형태의 아르바이트, 면접 문화 등이 한국 현대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③ 건강문화 : 경제가 발달하면서 바쁘게 살아온 현대인들이 건강한 삶에 관심을 가지면서 생겨난 문화 현상으로 ‘웰빙’현상, 건강과 관련된 취미와 운동, 물품의 증가가 이를 보여준다.

위에서 언급한 특징은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으로 이러한 특질적인 내용은 한국 문화 항목 선정에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특징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화 현상들은 초·중급 학습자 선호도 조사결과를 통해 나타나 항목들과도 부합한다. 한국 문화의 고유한 특징과 초·중급의 학습자 선호도 조사결과를 연계하여 초·중급 학습자를 위한 구체적인 문화 항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한국 문화 특질을 반영한 한국어 문화교육 항목 선정

문화 특질	문화 항목	세부 현상
가족문화	높임말과 호칭	어른을 공경하는 말투와 각 관계에 따른 다양한 호칭
	명절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한 귀성행렬
집단문화	‘우리’의 의미	‘우리 집’, ‘우리나라’
	모임문화	동아리, 동호회, 부녀회 등의 다양한 공동체 형성
공유문화	음식문화	한 그릇에 함께 먹기, 여럿이 나누어 먹기
	인사법	“밥 먹었어요?”, “어디 가세요?”
서열문화	존댓말/반말	나이에 따른 어휘와 표현의 변화
	인사법	‘나이 묻기’를 통해 서열정리
	식사에절	윗사람이 먼저 수저 들기 아랫사람이 먼저 일어나지 않기
	직장문화	직책에 맞는 호칭과 그에 맞는 예절, 제한된 행동
역동적 흥(興)문화	축제문화	대학별 지역별 축제문화
	‘방’문화	노래방, 찜질방, PC방
	전통놀이	민속놀이, 사물놀이
	기념일	다양한 ‘데이’문화
	대중문화	가요, 드라마, 공연문화, 한류

변화하는 현대문화	정보문화	배달문화, 생활에 필요한 주요 전화번호, 대중교통 이용방법
	직업문화	변화하는 직업 선호도, 아르바이트의 종류와 정보, 면접 방법
	건강문화	‘웰빙’문화, 운동문화, 건강보험제도

또한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는 초·중급의 학습자는 일반적인 초급, 중급, 고급의 세 단계에 속하는 초·중급이기 보다는 최길시(1992)의 분류⁵⁾에 기준한 초·중급 수준에 적합하다. 한국어 능력의 마지막 단계인 고급의 단계로 넘어가는 전 단계로서의 중급이 아니라, 기본 문형을 익힌 초급의 수준을 지나서, 한국어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간단한 문장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의 중급인 것이다. 이러한 초·중급의 시기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어서 적절한 문화 교육을 함으로써 언어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⁶⁾.

5) 최길시(1992)는 ‘한국어 능력 검정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어 능력을 초급, 중급, 상급, 특급의 4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의 도달 목표를 설정하였다. 각 단계는 4급(초급, 한국어의 기초를 이해하며 초보적인 회화가 가능하고 간단한 생활문을 읽거나 기본 문형의 글을 쓸 수 있는 단계), 3급(중급, 한국어의 기본은 이해하고 간단한 일상 회화를 자연스럽게 구사, 쉬운 글은 읽고 이해하며 간단한 작문을 할 수 있는 단계), 2급(상급, 일상적인 한국어를 거의 이해하며 자기의 의사와 감정을 거의 표현하고 일상 생활문, 일반적인 서적의 내용을 이해하는 단계), 1급(특급, 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말할 수 있으며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 능력을 소지한 단계)으로 나눈다.

6) 초급 단계 학습자들에게는 의사소통 능력을 빠른 시간 내에 향상 시켜 목표 언어 사회에서 기초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러한 문화적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 과정에 있어서 흥미와 동기를 더욱 강화하는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조항록·강승혜, 2001:507).

4. 문화 항목 유형에 따른 교육 편성 방안

한국 문화 학습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수업유형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학습자들은 한국어 교재를 통한 문화 학습이 과제 중심적이고, 문화를 언어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는 수업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서 문화적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이 문화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음을 뜻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재를 편성하기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제시해보기로 한다.

첫째, 한국어 교재 편성에 있어서 그 대상으로 하는 학습자들의 수준과 선호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한국어를 교육할 때 한국 문화를 함께 제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 및 자국의 문화와는 차별되는 일상적인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낯선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되고 한국어 학습에 장애가 되는 부정적인 문화적 충격이나 오해 없이 한국어 학습에 효과적으로 임할 수 가 있다. 그러나 문화교육이 학습자의 수준에 비하여 지나치게 난이도가 높거나, 단순히 정보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여 언어교육과는 분리된 해설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학습자로 하여금 문화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이해하거나 파악하기 힘들게 할 것이다. 이는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반감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교재를 편성하기 전에 교재의 대상이 되는 학습자의 학습 목표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에 맞춰서 학습자의 요구와 문화 선호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

둘째, 한국어 교재에서 언어와 문화가 통합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김정숙(1992)은 초급단계에서 문법적인 언어지식을 도외시 할 수는 없지만 언어와 문화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문화적 내용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유형 연습 시 일반적

상황을 나타내는 예문 대신 문화적 사실이 담겨있는 예문을 사용해 연습시킴으로써 문법적 언어지식의 교육과 함께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많은 문화 관련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한국 문화 전반에 관해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언어를 교육함에 있어서 문화란 언어 교육과 분리되어 정보 전달만을 목적으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어 교재에서 언어의 기능적 측면과 분리되어 별도의 해설란을 통해 문화를 제시하게 되면 문화 자체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화의 이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에도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언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의사소통의 가장 큰 도구임을 생각할 때 언어와 분리된 문화 구성은 한국어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인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 교육의 최종적인 목적을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두었을 때 한국어 교재, 특히 초·중급에서 제시될 문화 항목은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문화 요소 자체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 자체가 한국어 학습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문화 교육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교재에서 사용될 문화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제시되어서는 안 되며, 학습자가 교실 밖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생활과 관련된 실질적이고 참신한 문화 자료를 배경으로 하는 단락 혹은 단문 제시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문화 교육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보조 자료와 과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성이 되어야 한다. 문화 가운데는 언어적 설명을 통해 이해가 가능한 요소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초·중급의 학습자들은 한국 문화를 실제로 접해 본적이 없거나 명칭 자체는 알고 있으면서도 정확하게 어떤 대상이나 부분을 가리키는지 모르고 문화 교육에 임하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제시하고자 하는 문화적 소재에 대해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시

각적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한다면 학습자의 문화 이해에 관한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한국어 교재의 문화 내용이 설명적인 자료와 시각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제시한 문화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확인하는 과정도 함께 구성되어야 한다. 문화 내용을 읽기 자료로서 제시하고 이와 연관된 질문을 통해 문화적 이해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확장해나가는 활동이 이에 속한다. 또한 문형연습이나 문법교육을 위한 예문에 학습하고 있는 문화 항목과 관련된 단문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문형 연습, 문법 교육과 동시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주어진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함을 물론이고, 교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련의 과제 활동을 통해서 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여부를 점검하고 보다 심층적인 문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전략 개발에 힘써야 한다.

문화 항목을 선정하고 교재를 편성함에 있어서 각각의 문화 항목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문학 작품이나 제도/관습의 요목은 읽기자료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질문과 줄거리의 재구성을 통해 개념을 이해하게 하며, 비교문화의 관점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다. 사물놀이, 음식, 전통 가옥과 같은 건축물 등과 같이 지나친 설명이 오히려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화 항목은 시·청각적인 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이해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구성원들의 사고방식, 행동양식, 예절, 문화적 차이에 의하여 생기는 언어 사용의 양상과 같은 항목들은 설명문이 아닌 대화문이나 짧은 예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자료들 안에서 언어의 기능적 측면을 교육하는 것이 문화와 언어 교육의 두 가지 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문화 항목의 유형에 따른 교재 편성의 방식을 ‘개념적 이해가 필요한 항

목’, ‘시·청각적 이해가 필요한 항목’, ‘민족지학적 이해가 필요한 항목’의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분류에 해당하는 문화 항목을 제시하였다.

표 10. 문화 항목의 유형에 따른 교재 편성 방식

분류	문화 유형	문화 항목	자료 제시 방법	공동적 활동
개념적 이해가 필요한 항목	문학 작품이나 제도/관습의 요목	명절문화, 모임문화, 직업·직장문화, 정보문화, 각종 기념일, 건강문화	• 읽기 자료 활용 • 다양한 질문 활동을 통한 내용 이해 유도 • 이야기 구연, 재구성, 연결하기 • 비교문화적 관점의 확장	• 문화적 상황맥락화된 언어의 기능적 연습 활동 • 실생활적인 언어로 구성된 대화문, 예문 제시 • 막연한 느낌을 뚜렷한 개념으로 정리하는 쓰기 활동
시·청각적 이해가 필요한 항목	사물놀이, 음식, 전통 가옥과 같은 건축물	음식·식사에 절 문화, 축제문화, ‘방’문화, 전통놀이, 대중문화	• 교재 구성구성의 시각적이고 실물적인 자료 활용 • 직접적인 문화 경험 활동	• 주제와 연관된 보조 자료의 적극적 활용(시청각, 웹사이트) • 활발한 언어사용의 기회를 위한 모둠 활동
민족지학적 이해가 필요한 항목	구성원들의 사고방식, 행동양식, 예절, 문화적 차이에 의하여 생기는 언어 사용의 양상	높임말과 호칭, ‘우리·식사예절’의 의미, 인사법, 직장 내 호칭과 관계문화	• 대화문 자료 활용 • 자신만의 개별화되고 창조적인 연습 활동 • 다양한 모둠 활동 • 의사소통적 상호작용 • 재현, 역할놀이, 인터뷰	• 주제와 연관된 보조 자료의 적극적 활용(시청각, 웹사이트) • 활발한 언어사용의 기회를 위한 모둠 활동

7) 1960년대 Dell Hymes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된 의사소통 민족지학은 말을 하는 방법이 문화마다 다르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언어사용을 사회적, 문화적 가치와 관련시키려는 방법으로, 이 연구 방법을 Hymes(1962, 1968)는 ‘화행 민족지학(Ethnography of Speaking)’이라는 용어로 표현했으나 보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민족지학(Ethnography of Communication)’이라고 불린다. 의사소통 민족지학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류학자들은 연구에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를 첨가하여 단편적이고 기계적인 방법으로는 그 모형을 세우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언어와 문화의 양상에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그간 언어학자들이 추상적인 체계로서만 관심을 쏟고 있던 언어학의 범위를 확장시켰다(한상미, 1999:352 재인용).

5. 맺음말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재들이 문화 교육의 측면에서 갖추어야 할 항목과 제시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학습자의 수준, 의사소통능력과 관계된 선호도를 파악하는 일은 한국어 문화 교재 편성을 위한 문화 항목 선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맞추어 중급 이상의 중국유학생 197명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한국 문화 수업의 유형과 의사소통향상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항목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은 일상의 현대적이며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는 문화 항목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문화적 배경자료를 활용한 언어교육과 과제 활동 중심의 수업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화 항목의 선정을 위해 대표적인 한국문화의 특질을 가족문화, 집단문화, 공유문화, 서열문화, 역동적인 흥(興)문화, 변화하는 현대문화로 나누었다.

한국어 교재를 편성하기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제시해 보았다.

첫째, 한국어 교재 편성에 있어서 그 대상으로 하는 학습자들의 수준과 선호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는 훌륭한 문화 요목 일지라도 흥미와 관심을 떨어뜨려 효과적인 한국어 수업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어 교재에서 언어와 문화가 통합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언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의사소통의 가장 큰 도구임을 생각할 때 언어와 분리된 문화 구성은 한국어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인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셋째, 한국어 교재, 특히 초·중급에서 제시될 문화 항목은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이는

교재에서 사용될 문화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제시되어서는 안 되며, 학습자가 교실 밖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생활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넷째, 문화 교육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보조 자료와 과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성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주어진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함을 물론이고, 교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련의 과제 활동을 통해서 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여부를 점검하고 보다 심층적인 문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전략 개발에 힘써야 한다.

문화 항목을 선정하고 교재를 편성함에 있어서 각각의 문화 항목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도 제안해보았다. 문화 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념적 이해가 필요한 항목”, “시청각적 이해가 필요한 항목”, “민족지학적 이해가 필요한 항목”으로 나누었다. 문화 가운데는 언어적 설명을 통해 이해가 가능한 요소도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시각적 자료를 통하거나 혹은 학습자 중심의 과제 활동을 병행하지 않고는 이해가 불가능한 문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선정된 문화 항목의 유형에 따라 각각 구별되게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과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활동도 함께 제안하였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요목별로 다양한 활동과 전략의 개발·시도를 통해 실현가능하며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보다 효과적인 방안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편성안의 실례 연구가 과제로 남는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국립국어원(2002), 우리 문화 길라잡이, 학교재.
- 국립국어원(2005), 한국어 교재 분석 연구, 저자 : 국립국어원, 이병규, 안설희, 조민정, 이은경, 조인옥, 박수연, 국립국어원.
- 권영민 외 (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읽기, 아름다운 한국어학교.
- 이운진(1998), 김치한국어, 커뮤니케이션북스.
- 전미순(2008), 문화 속 한국어1, 랭기지플러스.
- 전미순(2009), 문화 속 한국어2, 랭기지플러스.
- 조재윤 외(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길라잡이, 박이정.
- 조향록 외(2008), Practical Korean, 다락원.
- 한국어교육개발원(2006), 아름다운 한국어 1-1, 1-2, 아름다운 한국어학교.
- 한국어교육개발원(2008), 아름다운 한국어 2-1, 2-2, 아름다운 한국어학교.

2. 논문/단행본

- 강승혜(2003), “한국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한국어 학습자 요구 분석”, 한국어교육 14-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9쪽.
- 권순희(1996), “언어 문화적 특성을 한국어 교육의 교재 편성 방안”, 국어교육연구 3-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19쪽.
- 김남현(2001),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수현(2004), “한국어 교재의 문화 교육 현황과 방안”, 이화어문논집 제22권, 이화어문학회, 43-59쪽.
- 김정숙(1997),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교육한글 10, 한글학회, 317-326쪽.
- 김중섭·이관식(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어 교육 1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61-81쪽.
- 라혜민·우민혜(2001), “중급 교재 내의 문화 교육 방안”, KRF 연구보고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63-174쪽.
- 민현식(2000), “한국어 교재의 실태와 대안”, 국어교육연구 7-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5-60쪽.

박영순(1989), “제2언어 교육으로서의 문화교육”, 이중언어학 5-1, 이중언어학회, 43-59쪽.

박영순(2003),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한국문화사.

박숙영(2007), “문화간 의사소통을 위한 가치문화 교육 방안”,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기철(2001),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 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11-135쪽.

심민아(199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문화 교육 방안”, 이화여대 학위 논문.

이소영(2001), “한국어 교재의 문화 요소 분석 및 한국어 문화 통합 교수 방안”,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진숙(200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화를 통합시키기 위한 교육적 방안”, 국어교육연구 제12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331-350쪽.

임경순(2009), 한국어문화교육을 위한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윤여탁(2000),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의 위상과 역할”, 국어교육연구 7-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91-308쪽.

장연희(1989), “외국어교육에 있어서의 문화교육”,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경은(2001), “한국어 교육을 위한 단계별 문화 내용과 교수 방법”,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윤정(2002), “한국어 교재에서의 문화 교육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창환(1996), “한국어 교육과 연계된 한국 문화 소개 방안”, 한국어 교육 제7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09-119쪽.

조향록(1998), “한국어 고급 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23-237쪽.

조향록(2000), “초급 단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 교육 1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53-173쪽.

조향록·강승혜(2001), “초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수 요목의 개발”, 한국어 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491-510쪽.

- 최길시(1991), “한국어 능력 검정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응환(2004), “한국어 교육에서의 언어문화교육”, 문학과 언어 26, 문학과언어연구회, 87-106쪽.
- 한상미(1999), “한국어 교육에서의 언어문화교육의 통합적인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47-366쪽.
- Donald Baker(1996), “Defining, Interpreting and Teaching Korean Culture in the 21st Century”, 한국어교육 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43-153쪽.
- Nunan, D.(1999), Syllabus Desig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ichards, J. C.(2001), Curriculum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elye, H. N.(1984), Teaching Culture: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National Textbook Company.

Abstract

Designing Korean Cultural Education Syllabus for Foreigners

Lee, Hyo-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Korean cultural education syllabus for foreigners. It is quite difficult to achieve language without understand the target language culture. But in many of Korean education classes, cultural education has been composed of a simple explanation. And even more the contents of cultural education are aparted from the needs and culture preference of the learners.

This study is significant to inquire about the contents of Korean culture education and designing integrated language-culture education syllabus. To do this classified Korean cultural contents into three type and suggest four principles.

Key-words : cuturel contents, culture preference, cultural education syllabus, culture type, syllabus designing,

이효인

대불대학교 국제한국어교육학과 조교수

주소 : (526-702)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113 대불대학교 국제한국어교육학과

전화번호 : 061-469-1526, 010-8569-0687

전자우편 : leehi@db.ac.kr

이 논문은 2011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1년 12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1년 12월 26일 게재 확정됨.